



안중현

선열들의 나라 위한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 6월이다.

남구에 위치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면, 유엔군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국의 참전노병들이 방문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전우의 명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0여 년 전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전투를 벌인 해외의 6.25 참전용사들. 그들 또한 치열한 격전에서 장렬하게 산화하거나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전쟁의 상흔으로 지금까지 병상에서 고통 받고 계신 분들도 있다.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소속의 우리측 병사들을 비롯한 2,300기의 전몰용사들이 잠들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처음 조성하였었으며, 같은 해 4월 묘지가 완공됨에 따라 개성, 인천, 마산 등지에 가배장되어 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가 안장되기 시작됐다.

이후 1959년 11월 유엔과 대한민국 간에 “유엔 기념 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유엔 간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유엔기념묘지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1년 3월 30일 한 국어 명칭을 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자유와 평화의 참돛

국가보훈처에서는 재향군인회와 함께 매년 해외참전용사와 유족을 초청하여 변화된 대한민국의 면면을 안내하고 가족과 전우가 묻힌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해외 참전용사 재향 사업’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한 영국

군은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그때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말하며,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된 한국이 21세기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됐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워서 얻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후 세대가 전체 인구의 80%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의 분단과 이산의 아픔은 민족의 아픈 역사로 남아 지나는 세월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가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이룩된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이 물려주신 자유와 평화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를 수호하

고 발전시켜 부강한 나라를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지 않는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오늘을 통해서 미래가 보인다”는 격언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대의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삼신성인의 정신, 피부룩이나 국가를 따지지 않고 희생한 분들의 열사봉공의 정신은 계속해야 할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다.

나라사랑 되새겨야

그를 위해 자녀와 함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헌화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추념하며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국가에 대한 참다운 봉사 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며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며 전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호국외식 선양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예우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로 6주년을 맞는 제2 연평해전 추모행사가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기념 행사로 격상되어 교전 당시 희생된 젊은 용사들의 공훈을 드높인다.

건국 60주년이 되는 2008년의 호국·보훈의 달도 골자락에 서 있다. 이러한 때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을 바탕으로 이룩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후손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부산지방보훈청장



<149>



선용의
1000자 지혜 ⑤

물의 가르침

요즘 광우병 쇠고기파동으로 나라 안이 몹시 시끄럽다. 연일 미국과의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행정부를 집타하는 목소리와 촛불집회야 전국 곳곳에서 수그러들 줄 모르고 노도처럼 이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경제만큼은 꼭 살리겠다는 새정부의 호언장담에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날로 오르는 물가에 다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두 분노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도 불을 끄려 나라를 데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모두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시의 입막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하루빨리 모두가 정부를 신임하고 만족할만한 명쾌한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일찍이 중국 명(明)나라의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왕양명(王陽明)은 정치를 못지않게, 물의 자제로 해야 백성이 믿고 따르며 모두 태평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물의 다섯 가지 교훈(水五訓)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한다.

1) 헌신성명적 정신(獻身生命的精神)

물은 스스로를 움직여 다른 것도 움직이게 하며 생명체를 키우고 그들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2) 포용정화적 정신(包容淨化的

精神)

물은 스스로 맑아지려 하면서 다른 것의 더러움도 씻어주며 맑고 더러움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다.

3) 불굴전진적 정신(不屈前進的精神)

물은 멈추지 않는다. 앞에 장애물이 막고 있으면 틈새를 찾아 그 사이로 흐르거나 아니면 돌아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4) 극복투지적 정신(克服勵志的精神)

물의 힘을 인위적으로 막으려해서는 안된다. 저수지나 뚝을 쌓아 물줄기를 막는 것은 물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이긴 하지만 넘치게 막으면 터져 흐른다.

5) 각자덕인적 정신(覺者德人的精神)

강과 바다를 채우고 때로는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얼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은 높은 곳으로 오르는 일이 없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며 타(他)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우리를 자신은 말할 것 없고 특히 정치인들은 물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政治〉란 한자는, 회초리를 들고 백성을 바르게(正) 이끌고, 홍수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治)한다는 글자가 아닌가?

(변역문화가·용호1동)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여름철 맨홀 정비하자

여름철은 우기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도로변 하수구와 맨홀안에 쌓여있던 모래 등에 의해 하수구 뚜껑이 맨홀위로 분수처럼 솟아 올라 도로가 물바다가 된다.

용당 초등학교 뒷마당 하수구는 그동안 많은 정비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28일 내린 많은 양의 비로 물이 솟아 올라 왔다. 토착된 흙을 제

거해 여름철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최창섭 (대연3동)

이혼중재 서비스를

현재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이혼 전 숙려제도가 있다. 하지만 여성의 한시탐으로써 숙려기간을 거친후에도 결국 갈라서야 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여성을 위한 <이혼중재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윤영 (대연1동)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야간진료비 부과 홍보 강화

병원에서는 진료시간과 함께 야간 진료비 추가 시간을 함께 적어놓아 민원인이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감만2동 감만회회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야간진료비는 국민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야간 및 휴일의 응급질환자 중 비응급환자가 34%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오후 6시(토요일 오후1시)부터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 등을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행된 제도인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나봅니다. 이용환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관련단체 및 요양기관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동림 (보전소)

남구아동위원회 구성

구청 차원에서 저항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연2동 조정례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산에도 최근 아동 성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우리 남구에서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주관: 주민복지서비스과, 야간: 당직실)를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남구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상담을 통한 지도와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별로 아동위원 1명을 두어 관내의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 아동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인근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즉시 상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조치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의 아동은 경찰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협

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부영 (주민복지서비스과)

대형차량 불법주차 강력단속

문현2동 박수빈씨에서 제기하신 문현금융단지 예정지역 주변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도보단속과 차량탐색주행 CCTV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은 보관소가 없어 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 차량 탐색주행 CCTV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견인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교동행정과)

■독자의詩

태풍 불고 비 오면



하 선 우

(용산초동·3)

핑핑 태풍 불고 우루루 비 오는 날에는 큰 나무가 엇가락처럼 허리를 숙인다 작은 나뭇가지는 바람이 좋아 호리호리 함께 춤춘다.

민달팽이는 빗줄기를 샤워기로 느끼고 새들은 동자를 지키느라 고생한다 힘없는 개미는 여행을 하며 “나, 어디로 가는 거야?” 바람에게 묻는다.

물이 짙 찬 웅덩이에는 물고기 한 마리 떠돌아 자연 어항이 된다.

나는 신기하여 명하게 입 벌리고 우산이 날아가는 줄도 모른다.

남구어린이백일장

제4회 남구어린이백일장이 지난달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심부름’과 ‘운동화’라는 주제를 놓고 글씨력을 겨루 16명이 입상했다. 다음은 이번 대회에서 남구청장을 받은 김혜선 어린이의 작품.



김 혜 선

(용산초동·5)

반짝반짝 날개 신

어렸을 때 올 엄마 손보다 작던 작고 귀여운 제 발은 어느 샌가 엄마의 수세미같이 까칠까칠한 발과 크기가 비슷해졌습니다. 아기가 했던 예쁜 신발도 작아져 버려져 엄마는 나를 데리고 새 신발들이 급게 줄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발가게로 데려가 셧습니다. 신발가게가기 전부터 잔뜩 기대하고 있던 저는 신발가게로 갈 때 걷지도, 뛰지도 않고 새처럼 훨훨 날아서 간 것 같습니다. 신발가게에 도착하자 고 무뎌새가 코를 찌르는 즉시 반짝 반짝 환하게 빛나는 예쁜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 신발 정말 예쁘네.”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신발이라는

물건을 처음 본 아이마냥 즐거워 하였습니다. 그 중 어떤 신발이 눈에 꼭 들어왔습니다. 도라지꽃처럼 예쁜 보라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줄, 터프한 저의 손영록 선생님의 글씨처럼 멋진 영어에다가 우리 전 국민의 새하얀 마음 같은 깔끔한 흰색 바탕! 정말 멋지고 화려한 운동화였습니다. 저는 당장 엄마에게 쪼르르 달라고 이 멋진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도 이 신발을 보더니 웃으며 허락하셨습니다.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올 때 저는 이 세상을 다 가져서 날아가 우주까지 갈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았습니다. 저의 예쁘고 멋진 신발을 사주신 엄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뭘

입상자 명단

■장원 ▲남구청장상 김혜선 (용산초동·5) ▲남부교육청교육장상 김영림 (용호초동·6) ▲경성대학교 이사장상 김지유 (용호초동·3) ▲경성대학교 총장상 최지수 (용호초동·3) ▲차상 ▲여지원 (용호초동·4) 김지인 (성동초동·6) 전우주 (용호초동·2) 김민규 (백운초동·3) ▲차하 김효은 (석포초동·6) 유지연 (대연초동·4) 백예림 (동항초동·4) 김수지 (용호초동·6) 정수민 (대연초동·1) 배영선 (용산초동·2) 이유진 (대연초동·2) 정지현 (동항초동·2)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장 성 주 섭 / 편집주간 하 인 상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부산대도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